

보건교사의 수업연수에 대한 요구도 조사

최미정^{1*}, 진상우²

¹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²광주문화초등학교

Needs Assessment of In-service Education on Teaching for School Health Teachers

Mijung Choi^{1*}, Sangwoo Jin²

¹Dept.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²Gwangju Munhwa Elementary School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교사들의 수업연수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G시와 J도에 근무하고 있는 504명의 보건교사였다. 보건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질문지가 2013년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배부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교사 업무의 우선순위 1위는 건강문제 관리였으며, 2위가 보건교육이었으며, 이 결과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 < .01$). 두 번째, 보건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수업방법은 강의, 토의 그리고 실습의 순서로 나타났다. 세 번째, 보건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수업자료는 PPT, 교과서, 인터넷동영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대부분의 보건교사는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동의하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부분의 보건교사들은 수업연수를 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창의성 교육 또는 새로운 수업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needs assessment of in-service education on teaching for school health teac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04 school health teachers, who were working in G-city and J-do. The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of school health teacher's teaching from Nov. 9 to 23 2013.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a χ^2 -test.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The first priority of the school health teacher's work is 'management of health problems' and the second is 'health education'. A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school levels ($p < 0.01$). The teaching methods mainly used on health care instruction were lecturing, discussion and practical training. The teaching materials of health care instruction mainly used were ppt, internet video, and textbooks. Most of health care teachers agreed to creativity education but they used creativity education less in practice. Most school health teachers want to in-service education on teaching and the contents of the course are creativity education or storytelling for new teaching.

Key Words : Need Assessment, School Health Teacher, Teaching

1. 서론

현대 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발달은 지식의 생명주기를 짧게 만들고 집단 지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학교교육은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미래 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 지식, 인성을 학습자주도로 함양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1]. 이러한 변화 속에 학교교육은 변화하고 있으며 보건교사에 대한 역할과 기대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양호교사'라는 명칭으로 전염병 예방 및 신체검사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본 연구는 2014년도 조선간호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Mijung Choi(Chosun Nursing College)

Tel: +82-62-231-7356 email: tinercmj@hanmail.net

Received July 2, 2014

Revised (1st October 2, 2014, 2nd October 27, 2014)

Accepted November 6, 2014

청소년 흡연연구의 증가, 정신 및 행동 장애 비율 증가,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비만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 등이 대두되어 치료와 예방, 재활의 의미를 포괄하는 '보건교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학교 보건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2,3].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과 같은 시대적 요구와도 맞물려있다.

2008개정 교육과정 이후 재량활동 시간에 17시간 이상의 보건수업을 배정함에 따라 보건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인성교육, 학생 이해,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같은 보건교육 역량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2008-160호(2008.12.26)),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건강증진에 대한 주체적 인식, 건강에 유익한 지식 및 실천 능력 배양, 건강자원의 활용과 대처 기술,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건강한 환경 조성 등의 건강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교수방법에서도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창의·인성의 역량을 키워주도록 하고 있다[4]. 또한 2010년부터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경우 일반교사와 함께 보건교사의 평가항목에 교육과정 운영 능력이나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보건교사들의 수업역량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5,6].

보건교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연수기회를 갖거나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수가 보건 수업능력 향상과 관련이 적거나 연수 내용 및 방법의 부적절함, 승진 및 승급 등의 유인체제 미약, 교사 의욕 부족, 강사 전문성 및 현장 이해도 부족을 이유로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7-10].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보건교사 연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보건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과 보건영역 지도 실태에 관한 연구,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태와 교사직무능력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보건교사의 연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화중[11]은 양호교사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효과적인 보건교사 자격연수를 위해 교과목 별로 표준화된 교재개발, 평가 지침 개발 및 강사교육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유명순[12]은 보건교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일반교사와의 직무능력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건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나 프로그램

개발과 이와 관련된 제도적 여건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보건교사의 연수와 관련하여 김영숙[13]은 보건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및 요구분석이라는 연구에서 보건교사 자격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각 지방마다 보건교사 자격연수 교육과정이 다르고 교과목 수는 과목 수에 비해 시간 편성이 적어 보건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양 및 교직과정 영역을 개편하여 창의성 교육,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보강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정미와 박영수[6]는 보건교사의 현직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전체 보건교사의 84.9%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에 참여하는 등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사의 전문성 및 현장 이해도에 대한 불만이 39%,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족이 32.4%로 현직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김은희[9]는 중등학교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환경과 보건교사의 직무능력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프로그램이 주로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수학습방법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연수 및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첫째, 보건교사의 연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구성원의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둘째, 사회와 교육과정이 더욱 요구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수업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창의·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건교과를 통해서도 다양한 교수법과 창의·인성교육으로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들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연구 또는 현재 보건교사들이 수업에서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물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보건교사들의 수업능력에 대한 사회와 교육과정의 요구, 그리고 교육 당사자인 보건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수업관련 연수의 방향,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요구가 어떠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력, 학력, 학교급 별로 다양한 보건교사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업방법, 수업자료, 창의성 수업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교사의 수업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연수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수업연수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며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G시와 J도에 근무하는 초·중·고 보건교사들이다. 보건교사의 수업연수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하기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보건교사의 연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교사 연수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 설문지를 개발하고 현장전문가 5명, 교육과정 전문가 2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된 설문지를 20여명의 보건교사들에게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보건교사 집단 연수회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참여자 720명에게 배부되었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504부로 70%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었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이며 본 연구와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찾을 수 없어 주제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개발하였는데, 김정미 [14]의 보건교사의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질문지, 안현숙[15]의 초등학교 보건교육 내용 요구도 질문지 그리고 서혜애·조석희·박성익[16]의 창의성 개발 교육을 위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연구자의 인적 사항, 보건교사 업무의 우선순위, 보건교사의 수업방법, 보건교사의 창의성 수업에 대한 인식, 보건교사의 연수 요구로 구분된다.

보건교사의 우선순위는 보건교육, 건강검사, 감염병 예방, 건강문제 관리, 보건실 관리 중에서 보건교사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매겨 보도록 하였다. 보건교육은 성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교직원 성희

롱 예방교육 등과 같은 보건수업에 관한 것이고, 건강검사는 학생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병리검사, 건강실태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은 취학 아동 예방접종 확인, 개인 위생관리 교육 등을 가리키며, 건강문제 관리는 응급처치, 요양호자 관리, 건강한 체중 관리 등 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보건실 관리는약품 및 비품관리, 건강기록부 관리, 학교보건업무 평가 등에 대한 것이다.

보건교사의 수업방법과 수업자료는 보건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업방법과 수업자료를 각각 세 가지씩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수업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보건교사의 창의성 수업에 대한 인식은 창의성 개발 수업의 필요 여부, 창의성 개발 수업의 실천 여부,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영역 및 기법에 대한 것을 조사하였다.

보건교사의 연수 요구는 연수내용, 연수의 필요성 인식, 주관기관, 원하는 연수 수업방법, 연수형태, 연수평가 방법, 연수시기, 연수시간을 조사하였다.

2.3 자료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가 인적사항, 업무의 우선순위, 보건교사의 수업방법, 보건교사의 창의성 수업에 대한 인식, 보건교사의 연수 요구로 구성되었으므로 전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집단별 차이분석을 위해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회수된 설문지는 총 504부였는데,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Respondents

	Variables	N	%
Gender	Female	503	99.8
	Male	1	0.2
Career	<5	127	25.2
	5-10	45	8.9
	11-15	35	6.9
	16-20	49	9.7
	21-25	142	28.2
	26-30	12	2.4
	31≤	94	18.7

School	Elementary	296	58.7
	Middle	108	21.4
	High	100	19.8
Location	Metropolitan	201	39.9
	City	144	28.6
	Rural	159	31.5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116	23.0
	Bachelor's Degree	279	55.4
	Master Degree	106	21.0
	Ph. D	3	0.60
Total		504	100.0

대상자 중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99.8%), 교직경력 5년 미만인 127명으로 25.2%, 5-10년이 45명으로 8.9%, 11-15년이 35명으로 6.9%, 16-20년이 49명으로 9.7%, 21-25년이 142명으로 28.2%, 26-30년이 12명으로 2.4%, 31년 이상이 94명으로 18.7%로 나타났다.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296명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하며, 중학교가 108명으로 21.4%, 고등학교가 100명으로 19.8%를 차지한다. 대도시에 근무하는 교사가 200명으로 39.7%,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교사가 144명으로 28.6%,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가 159명으로 31.5%로 나타났으며,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가 116명으로 23%, 학사학위가 279명으로 55.4%, 석사학위가 106명으로 21.0%, 박사학위소지자가 3명으로 0.3%를 차지하였다.

3.2 보건교사 업무의 우선순위

보건교사들이 생각하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1위는 '건강문제 관리'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으며, 2위는 '보건교육'으로 전체의 40.4%, 3위는 '보건실 관리'로서 전체의 8.7%, 4위는 '건강

검사'로 전체의 5.7%, 5위는 '감염병 예방'으로 전체의 3.5%로 나타났다. 보건교사 업무의 우선순위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은 '보건교육'을 건강문제 관리보다 우선시하여 보건교육이 47%, 건강문제 관리가 36.8%를 차지하였는데 비해 중학교는 건강문제 관리가 51.9%, 건강교육이 24.1%, 고등학교는 건강문제 관리가 44%, 건강교육이 39%로 나타나 학교급에 따라 보건업무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었다.

경력에 따른 업무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경력 15년 이하의 보건교사들과 26년에서 30년 이하의 보건교사들은 '건강문제 관리'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선택한데 비해 경력 16년 이상 25년 이하의 보건교사, 31년 이상의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육'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선택하여 경력에 따른 보건교사 업무 우선순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3.3 보건교사의 수업방법과 수업자료

보건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자주 활용하는 수업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강의가 1순위로 나타나 전체의 79.3%를 차지하였으며, 2순위는 토의로 전체의 9.1%를 차지하였고, 3순위는 실습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토론이 3.0%, 역할놀이가 2.4%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수업방법에 대해 경력별, 학교급별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교급별에 따른 수업 방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 > .05$), 경력에 따른 수업 방법의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Work priority of school health teachers

Variables		Health education	Health Screening	Protection of infection disease	Management of health Problem	Management of health care room	Total	X ² (p)
School level (%)	Elementary	139(47.0)	17(5.7)	10(3.4)	109(36.8)	21(7.1)	296(100)	40.424 (.00)
	Middle	26(24.1)	8(7.4)	4(3.7)	56(51.9)	14(13.0)	108(100)	
	High	39(39.0)	4(4.0)	4(4.0)	44(44.0)	9(9.0)	100(100)	
Career (%)	<5	32(25.2)	10(7.9)	8(6.3)	66(52.0)	11(8.7)	127(100)	68.613 (.00)
	5-10	9(20.0)	2(4.4)	1(2.2)	30(66.7)	3(6.7)	45(100)	
	11-15	12(34.3)	2(5.7)	1(2.9)	17(48.6)	3(8.6)	35(100)	
	16-20	25(51.0)	1(2.0)	1(2.0)	20(40.8)	2(4.1)	49(100)	
	21-25	75(52.8)	7(4.9)	3(2.1)	46(32.4)	11(7.7)	142(100)	
	26-30	4(33.3)	0(0.0)	0(0.0)	5(41.7)	3(25.0)	12(100)	
	31≤	46(48.9)	7(7.4)	3(3.2)	27(28.7)	11(11.7)	94(100)	

[Table 3] Teaching method of School health teachers

Teaching Method		Lecture	Discuss -ion	Debate	Role play	Practice	Total	X ² (p)
School level (%)	Elementary	224(78.4)	30(10.8)	5(1.7)	9(3.1)	17(5.9)	287(100)	24.006 (.293)
	Middle	89(84.1)	7(7.5)	3(2.8)	1(0.9)	5(4.7)	107(100)	
	High	77(78.6)	8(8.2)	7(7.1)	2(2.0)	4(4.1)	98(100)	
Career (%)	<5	99(78.6)	11(8.7)	8(6.3)	0(0)	8(6.3)	126(100)	68.954 (.005)
	5-10	36(83.7)	4(9.3)	0(0)	0(0)	3(7.0)	43(100)	
	11-15	26(74.3)	7(20.0)	0(0)	0(0)	2(5.7)	35(100)	
	16-20	37(75.5)	7(14.3)	0(0)	1(2.0)	4(8.2)	49(100)	
	21-25	117(84.8)	10(7.2)	2(1.4)	4(2.9)	5(3.6)	138(100)	
	26-30	10(83.3)	0(0.0)	0(0)	2(16.7)	0(0)	12(100)	
	31≤	68(76.4)	6(6.7)	5(5.6)	6(6.7)	4(4.5)	89(100)	

보건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자주 활용하는 수업자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파워포인트자료가 1순위로 나타나 전체의 55.9%를 차지하였으며, 2순위는 교과서로 전체의 24.1%, 3순위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14.6%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DVD 사용이 4.1%, CD 사용이 2.2%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수업자료와 학교급별, 경력별, 변인을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수업자료와 경력변인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건수업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들은 첫 번째로 '학생통제의 어려움'을 선택하여 27.1%를 나타냈으며(27.1%), '다양한 수업방법 이해의 부족'이 두 번째로 20.8%를 차지하였고, '교수·학습자료의 부족'이 세 번째로 19.7%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는 '학생수와 학습수 과다'가 12.8%를 차지하였고, 다섯째로는 '보건 교과 내용의 과다'가 10%, 여섯째로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의 어려움'이 9.6%를 차지하였다. 보건 수업의 어려움에 대해 응답을 학교급별로 조사해 본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통제의 어려

움을 1순위(45.7%), 다양한 수업방법의 이해 부족을 2순위(44.4%), 교수·학습자료의 부족을 3순위(32.8%)로 응답한 데 비해,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통제의 어려움이 1순위(57.4%), 교수·학습자료의 부족이 2순위(37.0%), 학생수와 학습수 과다가 3순위(31.5%)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통제의 어려움이 1순위(41.8%), 교수·학습자료의 부족이 2순위(37.8%), 다양한 수업방법의 이해부족이 3순위(27.6%)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4 보건교사의 창의성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실행

창의성 계발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427명(84.7%)이 창의성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4명(12.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3명(2.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보건교사들이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수업에서 창의성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62.3%가 창의성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Table 4] Teaching materials of School health teachers

Teaching Materials		Textbook	Internet video	DVD	CD	PPT	Total	X ² (p)
School level (%)	Elementary	75(25.8)	44(15.0)	10(3.1)	3(0.7)	160(55.4)	287(100)	22.301 (.382)
	Middle	28(26.2)	12(11.2)	6(5.6)	5(4.7)	56(52.3)	107(100)	
	High	16(16.3)	16(16.3)	4(4.1)	3(3.1)	59(60.2)	98(100)	
Career (%)	<5	16(12.6)	16(12.6)	6(4.7)	3(2.4)	86(67.7)	126(100)	66.007 (.010)
	5-10	10(22.2)	4(8.9)	2(4.4)	1(2.2)	27(60.0)	43(100)	
	11-15	8(22.9)	7(20.0)	0(0.0)	0(0.0)	20(57.1)	35(100)	
	16-20	8(16.3)	10(20.4)	1(2.0)	1(2.0)	29(59.2)	49(100)	
	21-25	38(26.8)	23(16.2)	2(1.4)	0(0.0)	73(51.4)	138(100)	
	26-30	2(16.7)	3(25.0)	0(0.0)	0(0.0)	7(58.3)	12(100)	
	31≤	36(38.3)	8(8.5)	8(8.5)	5(5.3)	36(38.3)	89(100)	

36.9%가 창의성 수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의성 수업 실시 여부를 학교급, 경력, 교육수준 변인으로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Table 5의 결과와 같이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 수업 실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P<.05$), 학교급과 경력에 따른 창의성 수업 실시 여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창의성 계열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마인드 맵이 42.6%, 브레인스토밍이 2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프로젝트 학습을 이용하는 경우가 13.2%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lationships with teaching creativity and other variables

Teaching Creativity		Yes	No	Total	X ² (p)
Sch level (%)	Elem.	114(385)	174(604)	288(100)	7.212 (302)
	Middle	363(33)	72(66)	108(100)	
	Hgh	34(310)	63(60)	100(100)	
Career (%)	<5	33(32)	93(78)	126(100)	21.247 (047)
	5-10	21(47)	23(52)	44(100)	
	11-15	15(41)	19(59)	34(100)	
	16-20	21(44)	23(53)	47(100)	
	21-25	43(45)	91(65)	134(100)	
	26-30	32(50)	9(75)	12(100)	
Edu level (%)	31<	42(44)	52(53)	94(100)	16.809 (010)
	Associate Degree	34(26)	81(74)	115(100)	
	Bachelor's Degree	98(58)	176(62)	274(100)	
	Master Degree	53(51)	50(45)	103(100)	
	Ph.D	0(0)	3(10)	3(10)	

3.5 보건교사의 연수요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수업관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95.6%가 수업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4.2%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연수내용의 1순위는 창의력 향상이나 스토리텔링과 같은 새로운 수업방법이었으며 (58.9%), 2순위로 발문, 설명, 의사소통과 같은 일반적인 수업기술을 원하였고(29.8%), 3순위로 수업관찰 및 분석 방법을 원하였다(5.4%). 이 외에도 교수·학습과정안 작성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경우도 1.2%를 차지하였으며, 학교급, 경력, 교육수준에 따른 연수희망 내용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 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수업관련 연수의 주관은 교육청이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35.3%로 나타났으며, 전문기관이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33.7%로 나타났고, 교사연구회가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25.0%로 나타났다. 대학교가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방법은 순서대로 사례발표가 48%, 견학 및 참관 중심이 21%, 협의 및 토의중심이 20%, 실습위주가 16%, 강의식 진행이 14%로 나타났고, 연수형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합된 형태를 가장 선호하여 54%가 선택하였으며, 오프라인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가 31%, 온라인을 희망하는 경우가 14.1%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들이 원하는 연수평가 방법은 순서대로 지필 평가가 32.6%, 보고서를 통한 평가가 22.8%, 토론을 통한 평가가 15.5%, 근태평가가 14.1%, 발표를 통한 평가가 14.0%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들이 원하는 연수시기는 학기 중의 평일 오후시간이 38.7%, 여름방학 중 운영이 36.3%, 겨울방학 중 운영이 23.0%, 학기 중의 토·일요일 운영이 1.8%로 나타났다. 연수시간은 16~30시간이 54.0%로 나타났고, 15시간 이하가 28.8%, 31~60시간이 12.9%, 61시간 이상이 3.6%로 나타났다.

4. 논의

이 연구는 보건교사의 수업연수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로서 보건교사 업무의 우선순위, 보건교사의 수업방법, 보건교사의 창의성 수업에 대한 인식, 보건교사의 연수 요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G시와 J도에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 보건교사들 504명이었다.

보건교사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건강문제 관리'(41.4%), 2위는 '보건교육'(40.4%)으로 나타났으며 1순위와 2순위의 차가 약 1.4%로 나타나 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이 건강문제 관리 못지않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육'이 '건강문제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은 '건강문제 관리'가 '보건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보건교사에게 요양호자관리, 응급처치, 전염병 예방이나 신체검사 위주의 업무를 요구하던 시대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주체적 인식,

건강에 유익한 지식 및 실천능력 배양, 건강 자원의 활용과 대처 기술 등의 건강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보건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을 지적한 박경선·배을규[2]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권미경, 방경숙, 유주연[17]이 초등학생과 간호대학생의 인식 비교에서 초등학생과 간호대학생 모두 보건봉사자와 보건교육자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봉사자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한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보건교사의 수업방법과 수업자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업시간에 자주 활용하는 수업방법 1순위는 강의(79.3%), 2순위는 토의(9.1%), 3순위는 실습(5.3%), 4순위는 토론(3.0%), 5순위는 역할놀이(2.4%)로 나타나 보건교사들이 강의를 주된 수업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수업자료는 1순위가 파워포인트 자료(55.9%), 2순위가 교과서(24.1%), 3순위가 인터넷 동영상(14.6%), 4순위가 DVD(4.1%), 5순위가 CD(2.2%)로 나타나, 보건교사들이 수업자료로 교과서 외에 파워포인트나 인터넷 동영상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정순, 송경애, 이종은[18]이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태 연구에서 42.1%가 칠판을 사용한 강의식 교육을 하고, 슬라이드, 비디오, 컴퓨터 등의 영상매체를 37%, 인쇄물을 18.6%, 기타를 2.3%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과거보다 컴퓨터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가 보급되었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자료의 사용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보건교사들은 수업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생 통제의 어려움'(27.1%)과 '다양한 수업방법 이해의 부족'(20.8%)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최근 개인주의의 만연 등의 이유로 학교와 교사들의 규율과 규칙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교사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한 김정남, 이은영[19]의 연구, 김보람, 박영숙[20]의 연구, 차선경, 권동택[2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건교사들이 다양한 수업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적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 질문에 응답한 기타 답변에는 응급환자 발생이나 학생치료 문제 때문에 보건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보건수업을 위해 한 학교에 보건교사가 두 명씩 배치될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보건교사의 창의성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84.7%가 창의성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의성 수업의 실시는 36.9%로 나타나 창의성 교육을 보건수업에서 실시하는 정도는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 수업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전체 응답자 중 36.9%만이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최미정[22]의 연구에서 지적했던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연수의 부족, 교사의 창의성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며,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관련 연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교사의 연수요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6%가 수업관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창의력 향상이나 스토리텔링과 같은 새로운 수업방법을 원하였으며(58.9%), 2순위로 발문, 설명, 의사소통과 같은 일반적인 수업기술을 원하였고(29.8%), 3순위로 수업관찰 및 분석방법(5.4%)을 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건교사의 현직교육 연수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보건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방법이나 교육과정을 반영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정미[14]의 연구를 지지한다.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방법은 사례발표(48%), 견학 및 참관 중심(21%), 협의 및 토의중심(20%), 실습위주(16%), 강의식 진행(14%)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수형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합된 형태를 가장 선호하며(54%), 오프라인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가 31%, 온라인 연수를 희망하는 경우가 14.1%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보건교사들이 수업연수의 방법으로 이론위주의 강의식 연수보다 실질적인 연수를 선호한다는 이삼덕[2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보건교사들이 원하는 연수평가 방법은 지필평가(32.6%), 보고서를 통한 평가(22.8%), 토론을 통한 평가(15.5%), 근태평가(14.1%), 발표를 통한 평가(14.0%)의 순으로 나타나 현직교육 평가방법으로 지필평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필평가 외의 다른 평가방법의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에 대하여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16].

보건교사들이 원하는 연수시기는 학기 중의 평일 오후시간이 38.7%, 여름방학 중 운영이 36.3%, 겨울방학 중

운영이 23.0%, 학기 중의 토·일요일 운영이 1.8%로 나타났다으며, 연수시간은 16~30시간(54.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연수를 더 선호한다는 김정미[14]의 연구와 다소 다른 부분으로 요즘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수의 종류가 많고 자기계발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학기 중의 평일 오후를 더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현대 사회와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가 미흡하고 보건교사의 연수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사들의 수업방법, 수업자료, 창의성 수업 여부를 조사하고 수업관련 연수의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 되었다.

연구결과, 보건 교사 업무로서 '건강문제 관리'에 대한 인식이 우세하나 '보건교육자'로서 보건교사의 업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상당 수 나타났으며, 보건 수업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강의가 주가 되며, 수업 자료로 PPT, 교과서, 인터넷 동영상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건교사들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성 교육이나 새로운 수업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의 수업 연수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기초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건교사들의 수업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모형개발과 이를 근거로 한 수업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Strauss, Hubert., & Maionneuve, Christine de la.(2009). The wage premium on tertiary education: New estimates for 21 OECD countrie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Vol 2009, 1-28.

[2] K. S. Park & E. K. Bae(2012). A Delphi Study of Developing Competency Model For Korean Health Teach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5(1);1-13.

[3] C. R. Yi & N. W. Kwon(2008). Development of a Teacher

Efficacy Scale for Health Education Teac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19(2);247-259.

[4] J. H. Park et al.(2012). *Research on Achievement Standards And Achievement Levels Based on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ed In 2009: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Health*, (CRC 2012-18). KEDI, pp.1-51.

[5] K. W. Lee & M. J. Choi(2013). A Study of Teachers' Learning And Teacher Creativity Education.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Vol.3(1);5-30.

[6] J. M. Kim & Y. S. Park(2005).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Needs of The In-Service Education of School Nur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6;89-107.

[7] Y. S. Kim et al(2012). Factors Related to Teachers' Self-Efficacy In Korean Health Teach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5(1);59-67.

[8] S. W. Kim(2011).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for Health Care Teachers' Teaching Efficacy.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50(3);152-159.
DOI: <http://dx.doi.org/10.15812/ter.50.3.201112.152>

[9] E. H. Kim(2011). *A Study on The Health Education Environment, Work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Nursing Teachers At Middle And High School in Gyoung-gi province*. Korea University, pp.1-30.

[10] J. S. Park, S. H. Ka & J. Y. Uhm(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ew Teacher Evalu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Vol.19(2);125-156.

[11] H. J. Kim, S. N. Yoon & Y. I. Kim.(1996). Curriculum Development for In-Service Training of Schoo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9(1);31-41.

[12] M. S. Yoo(1997). *A Study of Teachers' Job Ability And Related Factors of School Health Nurs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30.

[13] Y. S. Kim(2002). *A Study of Recognition And Need Assessment on The Training Program of School Health Teachers*. Ajou University, pp.1-56.

[14] J. M. Kim(2006).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Needs of The In-Service Education of School Nurs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1-92.

[15] H. A. Seo, S. H. Cho & S. I. Park(2001).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Strategies for Fostering Students' Creativity in Schools. RR2001-6. KEDI. pp.37-170.

[16] H. S. Ahn(2010). *The Requirements analysis of Health Education in The Primary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28-80.

[17] M. K. Kwon, K. S. Bang & J. Y. Yu(2012). Role Expectation of School Health Teachers Recognized by Elementary Students An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e Education*, Vol.18(3);454-46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456>

[18] J. S. Moon, K. A. Song & J. E. Lee(2005). Status of Health Education by Elementary School Nur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2(4);57-72.

[19] J. N. Kim & E. Y. Lee(2013). Development of Job Stress Scale for School Health Teach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al Child Health*, Vol.17(1);79-92.

[20] S. K. Cha & D. T. Kwon(2012). A Study on Difference in Work-Related Stress And Burnou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Vol.19(1);111-130.

[21] B. R. Kim & Y. S. Park(2012).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s' Stress Management In Relation to Work Environment with Job Engagement And Burnout Respectively.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0(3);199-208.

[22] M. J. Choi(2010). Teacher Education Model Development for Creativity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 Instruction*, Vol.10(3);501-526.

[23] S. D. Lee(2005). *Needs of Public kindergarden te-achers on in-service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23.

진 상 우(Sangwoo Jin)

[정회원]



- 2002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광주문화초등학교 교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초등교사교육, 교육과정정책, 질적연구

최 미 정(Mijung Choi)

[정회원]



- 2005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St.John's Univ. 박사후과정
- 2013년 3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창의성, 교사교육, 보건교사교육, 보건교육